

동해안 기장 별신굿의 제신(祭神)에 관한 고찰 - 2013년~2017년 기장 별신굿의 사례 연구 -

문 혜 진*

| 목 차 |

- I. 머리말
- II. 기장 별신굿에 등장하는 제신
- III. 기장 별신굿의 제신의 성격
- IV. 맺음말

| 국문초록 |

동해안 별신굿은 동해안 북부지역의 별신굿, 동해안 중부지역의 별신굿, 동해안 남부지역의 별신굿으로 나눌 수 있으며, 특히 동해안 남부지역에서만 별신굿이 안굿과 밖굿으로 나누어 5~7일 동안 연행된다. 왜 부산을 포함한 동해안 남부지역에서만 별신굿을 안굿과 밖굿으로 나누어 제의를 올리는 것일까?

이에 대해 동해안 별신굿 무형문화재 보유자 고(故) 김석출씨는 안굿과 밖굿으로 별신굿을 연행하는 것이 여 성황신인 골매기할매와 남 성황신인 골매기할배를 위해 각각 제의를 올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기존의 동해안 별신굿 제신에 대한 선행연구는 동해안 북부지역 혹은 동해안 남부지역으로 나누어 굿거리별로 제신의 분석이 이루어져 왔지만, 부산 별신굿의 제신을 안굿과 밖굿으로 나누어 그

* 동서대학교 박사후국내연수 / shlove0315@hanmail.net

특징을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동해안 남부지역 별신굿의 안굿과 밖굿은 여성 제의적 특성과 남성 제의적 특성으로 이원화될 수 있는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부산 기장에서 연행된 기장 별신굿을 연구대상으로, 안굿과 밖굿에서 중복되어 연행되는 굿거리의 제신, 안굿에서만 연행되는 굿거리의 제신, 밖굿에서만 연행되는 굿거리의 제신으로 분류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기장 별신굿의 참여관찰 자료 및 무가 사설을 중심으로 안굿의 여성 제의적 특성과 밖굿의 남성 제의적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동해안 중북부 지역에 비해 현재까지 부산에 강하게 남아있는 별신굿의 안굿의 여성신을 구명(究明)하여, 부산의 전통적인 여신을 이해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기장 별신굿, 안굿, 밖굿, 부산의 여성신, 부산의 남성신

I. 머리말

동해안 별신굿은 강원도부터 경상북도·경상남도에 이르는 동해안 어촌지역에서 연행되는 굿을 일컫는다. 강원도 지역을 동해안 북부지역의 별신굿, 경상북도 지역을 동해안 중부지역의 별신굿, 경상남도 지역을 동해안 남부지역의 별신굿으로 나눌 때, 동해안 남부지역의 별신굿은 동해안 중북부 지역의 별신굿과 차이가 난다. 동해안 남부지역의 별신굿은 굿거리를 안굿과 밖굿으로 구분하여 굿거리의 수가 많으며, 이에 별신굿의 연행기간이 동해안 중북부 지역은 1일에서 길어야 3~4일 인데 반해, 남부지역의 별신굿은 5~7일 정도 소요된다. 기장 별신굿은 부산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는 공동체신앙 제의로서, 현재 두 호-대변-학리-칠암-이천-공수가 6년에 한 번씩 번갈아가며 안굿과 밖굿으로 나누어 5~7일간 별신굿을 지내고 있다.

그럼 왜 기장을 포함한 동해안 남부지역의 별신굿만 굿거리를 안굿과 밖굿으로 나누어 굿을 할까? 이에 대해 동해안 별신굿 무형문화재 보유자 고(故) 김석출씨는 동해안 남부지역의 안굿과 밖굿을 마을의 수호신인 골매기할매와 골매기할배를 위한 굿으로 설명하였다.¹⁾ 다시 말해서 안굿의 굿거리는 여신을 위한 제의적 특성을 띠며, 밖굿은 남신을 위한 제의적 특성을 띠는 것이다.

기존의 동해안 별신굿의 제신에 관한 연구로는 손진태의 『蘇塗考』(1932)²⁾와 아키바 다카시(秋葉隆)의 『朝鮮巫俗の研究』(1937)³⁾가 있으며, 이들은 각각 부산 구포별신굿과 강릉 단오굿의 제차를 기술하여 일제강점기 동해안 별신굿의 연행순서와 그 제신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한편 동해안 별신굿의 제신을 동해안 중북부 지역과 남부지역으로 나누어 고찰한 연구로는 윤동환의 『동해안 무속의 지속과 창조적 계승』(2010)과 김형근의 『동해안 남대 별신굿의 특징 연구: 안대 별신굿과의 비교를 중심으로』(2013)가 있으며, 윤동환은 동해안 별신굿의 제신의 전반적인 특징을, 김형근은 동해안 남부지역의 제신의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부산 별신굿의 제신을 분석한 연구로는 강용권의 『釜山地方의 『별신굿』考』(1963)와 최성진의 『동해안 별신굿 무가의 전승현황 연구』(2008)가 있으며, 강용권은 부산 별신굿의 제신을 천계신·인간계신·지하신·불교와 혼합된 신·도교와 혼합된 신으로 나누어 고찰하였으며, 최성진은 굿거리별로 제신을

1) 옛날에는 성황님들이 두 영감 할마이가 있다가 돌아가셔서 그 수호신을 모시니까. ……그르이(그러니) 안 커는(하는) 거는 안 재(內)자, ……인자 안 내지는 할무이고, 외는 밖 외(外)자, 영감이니까. 내외, 인자 안밖, 안 커는 거는 안 ‘내’자니깐 안굿이고, 밖은 밖 ‘외’자니까 안밖 내외굿이다. 두 영감 할마이 굿 이기(이것이) 안밖 내외니깐 요(2004년 4월 11일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 자택에서 김석출 구술의 채록을 윤동환의 『동해안 무속의 지속과 창조적 계승』(2010) 중 224쪽에서 재인용).

2) 손진태, 『蘇塗考』, 『한국민족문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48.

3) 赤松智城·秋葉隆, 심우성 옮김, 『朝鮮巫俗の研究』下, 동문선, 1991.

분석하였다.

즉, 동해안 별신굿 및 부산 별신굿의 제신을 전반적으로 다룬 연구는 있지만, 아직 부산 별신굿의 제신을 안굿과 밖굿으로 나누어 그 특징을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6~7일간 안굿과 밖굿으로 별신굿을 연행하는 곳은 부산이 유일하기 때문에, 안굿의 여신과 밖굿의 남신을 위한 굿거리의 제신의 특성의 고찰은 기장 별신굿, 한층 더 나아가 부산 별신굿의 특징을 구명하는데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부산 기장군에서 연행된 별신굿을 그 연구대상으로, 안굿과 밖굿으로 나누어 그 제신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⁴⁾

본 연구는 안굿과 밖굿의 제신의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부산의 여신과 남신을 구명하고, 특히 동해안 중북부 지역에 비해 부산에 강하게 남아있는 여신들을 파악함으로써, 부산의 전통적인 신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II. 기장별신굿에 등장하는 제신

기장을 포함한 부산 지역의 별신굿은 크게 안굿과 밖굿으로 나뉘어 연행된다. 즉, 안굿은 여성향을 위하여 하는 굿이고, 밖굿은 남성향을 위하여 하는 굿이다. 안굿과 밖굿에서는 독자적으로 연행되는 굿거리와 중복되어 연행되는 굿거리가 있는데, 2013년 대변 별신굿부터 2017년 공수 별신굿까지 연행된 굿거리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2012년 두호 별신굿은 필자가 현지조사를 하지 못하여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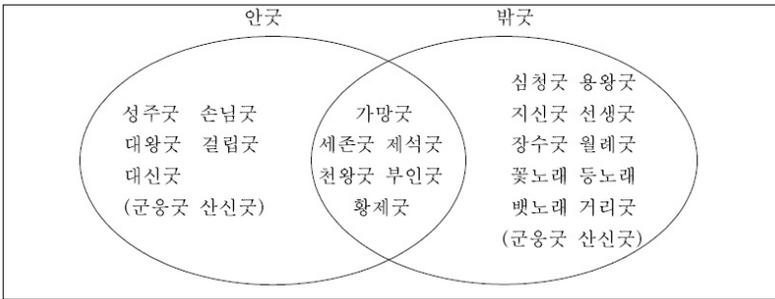
<표 1> 2013년~2017년 기장 별신굿 굿거리 순서

	안굿	밖굿
2013년 대변 별신굿	가망굿 - 세존굿 - 제석굿 - 산신령굿 - 부인굿 - 성주굿 - 천왕굿 - 손님굿 - 대왕굿 - 걸립굿 - 황제굿 - 대신굿	가망굿 - 세존굿(도둑잡이) - 제석굿 - 장군굿 - 선생굿 - 심청굿 - 군웅굿 - 제석굿 - 부인굿 - 천왕굿 - 용왕굿 - 축원굿 - 장수굿 - 걸립굿 - 월래굿 - 영산맞이 - 뱃노래 - 거리굿
2014년 학리 별신굿	가망굿 - 세존굿 - 제석굿 - 성주굿 - 군웅굿 - 부인굿 - 안천왕굿 - 황제굿(소놀이음) - 손님굿 - 대왕굿 - 걸립굿 - 학신굿 - 대신굿	가망굿 - 세존굿(도둑잡이) - 제석굿 - 심청굿 - 산신굿 - 부인굿 - 용왕굿 - 천왕굿 - 지신굿 - 장수굿 - 월래굿 - 영산맞이 - 꽃노래 - 뱃노래 - 등노래 - 거리굿
2015년 칠암 별신굿	가망굿 - 제석굿 - 세존굿 - 천왕굿 - 산신령굿 - 군웅굿 - 부인굿 - 성주굿 - 산신굿 - 황제굿 - 손님굿 - 대왕굿 - 대신굿 - 축원굿	가망굿 - 세존굿(도둑잡이) - 심청굿 - 제석굿 - 신령굿 - 군웅굿 - 황제굿 - 용왕굿 - 천왕굿 - 장수굿 - 월래굿 - 꽃노래 - 뱃노래 - 등노래 - 거리굿
2016년 이천 별신굿	가망굿 - 세존굿 - 제석굿 - 군웅굿 - 성주굿 - 부인굿 - 천왕굿 - 손님굿 - 황제굿 - 대왕굿 - 걸립굿 - 대신굿	가망굿 - 세존굿 - 천왕굿 - 제석굿 - 심청굿 - 용왕굿 - 산신굿 - 지신굿 - 늦동우굿(장수굿) - 월레굿 - 대잡이 - 뱃노래 - 등노래 - 거리굿
2017년 공수 별신굿	가망굿 - 세존굿 - 제석굿 - 군웅굿 - 부인굿 - 천왕굿 - 성주굿 - 황제굿 - 손님굿 - 대왕굿 - 걸립굿 - 대신굿	가망굿 - 세존굿 - 심청굿 - 제석굿 - 산신령굿 - 선생굿 - 용왕굿 - 천왕굿 - 대잡이 - 장수굿 - 월레굿 - 꽃노래 - 등노래 - 뱃노래 - 거리굿

위 <표 1>에 따르면, 기장 별신굿에서 안·밖굿에서 반복하여 연행되는 굿거리는 가망굿·세존굿·제석굿·천왕굿·부인굿·황제굿이 있다. 단, 부인굿의 경우 2013년 대변 별신굿과 2014년 학리 별신굿을 제외하고는 안굿에서만 연행되었으며, 황제굿도 2015년 칠암 별신굿을 제외하고는 안굿에서만 연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안굿에서만 연행되는 굿거리는 성주굿·손님굿·대왕굿·걸립굿·대신굿이 있으며, 반면 밖굿에서만 연행되는 굿거리는 심청굿·용왕굿·지신굿·선생굿·장수굿·월레굿·꽃노래·등노래·뱃노래·거리굿이 있다. 그 외

군웅곳과 산신곳은 예외적으로 안곳과 밖곳의 경계를 넘나들며 연행되고 있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기장 별신곳 안·밖곳의 곳거리 연행 구분 도표



안곳과 밖곳의 연행 순서는 위 <표 1>에 따르면 가망곳으로 시작되며, 밖곳은 꽃노래 - 등노래 - 뱃노래 - 거리곳으로 끝을 맺는다. 즉, 안곳과 밖곳이 가망곳으로 시작하는 것은 곳거리에 모셔질 제반 신들을 모셔오기 위해 가망곳이 곳문을 여는 역할의 곳거리임을 알 수 있으며, 꽃노래·등노래·뱃노래는 곳청에 모셔온 신들과 조상들이 등과 배를 타고 돌아가는 거리이다. 이후 맨 마지막에 연행되는 거리곳은 신들과 조상들을 둘러보낸 후 곳청에 따라온 잡귀잡신들을 풀어먹이는 거리이다. 따라서 기장별신곳의 구조를 청신(淸神) - 오신(娛神) - 송신(送神)으로 볼 때, 안곳의 가망곳이 청신의 역할로서 곳청의 문을 여는 거리로 볼 수 있으며, 안곳은 밖곳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송신의 곳거리들이 생략된다. 그리고 밖곳에서는 다시 가망곳을 연행하여 곳청의 문을 열고 신들을 놀린 후, 꽃노래·등노래·뱃노래로 송신하고 거리곳에서 잡귀잡신을 풀어먹이고 제의를 끝맺는다.

앞서 서술했듯이, 동해안 별신곳을 연행하는 지역 중에서 안곳과 밖

곳으로 별신굿을 5~7일 동안 하는 곳은 부산이 유일하다. 부산의 골매기할매를 위한 안굿과 골매기할매를 위한 밖굿의 신들을 살펴보기 위해, 안굿과 밖굿에서 반복해서 진행되는 가망굿·세존굿·제석굿·천왕굿·부인굿·황제굿, 안굿에서만 진행되는 성주굿·손님굿·대왕굿·걸립굿·대신굿, (송신거리 및 임의적으로 진행되는 지신굿을 제외한) 밖굿에서만 진행되는 심청굿·용왕굿·선생굿·장수굿·월레굿의 제신의 성격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기장 별신굿의 참여 관찰 자료 및 무가(巫歌)를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Ⅲ. 기장 별신굿의 제신의 성격

1. 중복 연행굿의 제신의 특징

부산의 기장 별신굿에서 반복 연행되는 굿거리로는 가망굿·세존굿·제석굿·천왕굿·부인굿·황제굿이 있다. 먼저 가망굿의 제신의 성격을 살펴보면, 김동연 무녀는 굿의 시작 혹은 끝자락에 가망거리를 조상굿이라고 설명하며 무가에서도 가망신을 “먼저 가신 선망(先亡) 가망, 나중 가신 후망(後亡) 가망, 월래 조상임네 모도(모두)”라고 지칭한다.⁵⁾ 하지만 밖굿에서 월래굿(조상굿)이 재차 연행되기 때문에, 가망굿을 조상굿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부산의 별신굿과 같이 황해도굿과 서울굿에서도 굿의 맨 처음에 초감흥굿(감응거리)과 가망청배가 연행된다. 다시 말해서, 가망굿은 속(俗)에서 성(聖)의 영역으로 이행하기 위해 굿판의 제반 신령들을 청하는 굿문을 여는 거리이다.

실례로 동해안 북부·중부지역에서는 가망굿이 없는 대신 골매기굿

5) 2016년 2월 14일 이천 별신굿에서 김동연 무녀의 가망굿 연행 사설.

을 연행하며, 동해안 남부지역에서는 골매기굿 대신 가망굿을 연행한다. 김영희 무녀의 골매기굿 사설을 보면, 골매기신은 굿의 제반 신령들이 굿청에 들어올 수 있게 굿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신이다.⁶⁾ 따라서 동해안 별신굿에서 제일 처음 연행되는 동해안 북부·중부지역의 ‘골매기굿’과 동해안 남부지역의 ‘가망굿’은 굿문을 여는 역할의 제차(祭次)로 볼 수 있다. 골매기신은 입향시조신으로 마을의 조상신이다.⁷⁾ 한편 가망신을 양중승은 “무당이 섬기는 모든 신을 관장하며 만물을 창조하는 신”,⁸⁾ 조홍윤은 “크게는 한민족의 시조이고 작게는 집안의 근원을 점지해 준 조상신 및 관련 제반 신령, 즉 무(巫)의 모든 신령”,⁹⁾ 홍태한은 “근원이고 조상의 성격을 가진 신격”¹⁰⁾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가망신은 김동연의 무가에서 표현되듯이 조상신이긴 하지만, 무속의 근원적인 조상신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존굿의 제신은 “자손 없는 집이 어디있는가요? 세존님네가 아들이고 딸이고 불가(불여)주야되지...또 농사를 지어 햇곡이 나면은, 햇곡맞이 신곡맞이해서, 또 세존단지에도 햇곡을 갈아 붓고, 없는 자손 불가주고, 있는 자손 수명장수. 또 자손을 명이야 복이야 하는데, 자손들 주고 가는데.”¹¹⁾에서 자손의 점지와 수명장수를 관장하는 신임을 알 수 있다. 세존은 석가세존(釋迦世尊)으로 본래 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다. 부산지역에서는 석가를 가리켜 ‘세존’ 혹은 ‘시존’이라고 부르는데, 세존굿에서는 불교의 석가세존을 모시는 것이 아니다. 세존굿은 천신으로서의 제석이 당금애기로 상징된 지모신과 결합

6) 2017년 1월 30일 공수 별신굿에서 김영희 무녀의 골매기굿 연행 사설

7) 최용수·김정호, 『아시아 지역 무속의례의 신화수용 연구』 『한민족어문학』 제46집, 2005, 108쪽.

8) 양중승, 『韓國 巫俗神 考察: 巫神圖를 中心으로』 『몽골학』 4, 1996, 37쪽.

9) 조홍윤, 『한국의 샤머니즘』,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19쪽.

10) 홍태한, 『가망의 의미연구』 『韓國民俗學』 제41권, 2005, 8쪽.

11) 2017년 1월 30일 이천 별신굿에서 김영숙 무녀의 세존굿 연행 사설.

하여 삼신(三神)을 낳는다는 당금애기씨 무가를 구송하는 거리이다. 석가세존은 한국에서 자손의 부귀영화 및 수명장수를 위해주는 신으로 신앙되었으며, 특히 경상남도 지방에서는 대청이나 곳간에 큰 항아리를 두고 햇곡식을 넣어서는 이것을 제석단지·세존단지·천왕독이라 부르며 제사하는 풍습이 있었다.¹²⁾ 기장에서는 시준단지라고 하며, 자식의 명과 복을 빌기 위하여 부녀자가 주관이 되어 정월 초하루와 추석날에 고기 등을 진설하여 제를 지내며, 시준단지는 곡식을 넣어 방의 선반 위에 보관하며 단지 속의 쌀은 선달 그믐날 갈아주었다.¹³⁾ 현재도 기장에는 자손의 점지 및 수명장수를 관장하는 세존단지를 모시는 가정이 남아 있으며, 세존단지의 모습은 아래의 <사진 1>과 같다. 즉, 자손의 부귀영화 및 수명장수를 관장하는 가신신앙의 세존이 별신굿의 제신으로 확대된 것이다.

제석굿의 제신인 제석(帝釋)은 이름 그대로 보면 불교의 신을 뜻한다. 불교의 제석은 수미산 꼭대기의 도리천에 살면서 불법을 수호하는 신이다. 하지만 기장 별신굿의 제석은 불교의 제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육지 농사와 바다 농사(해산물 양식)가 잘 되도록 바람을 관장하는 제석할매(또는 영등할매)”를 지칭하며, “영등할매

<사진 1> 2016년 기장 이천 별신굿 제주집의 세존단지¹⁴⁾



12) 조흥윤, 앞의 책, 1999, 43쪽.

13) 조태홍, 『기장지방의 세시풍속』, 『한국민족문화』8, 1996, 423쪽.

14) 이천 별신굿 제주집 부인은 남편이 4대 독자로 집안의 자손이 귀해 세존단지를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가 딸을 데리고 내려오면 그 해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며느리를 데리고 내려오면 그 해에는 비가 많이 온다.”는 무가를 구송한다.¹⁵⁾ 홍석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따르면, 2월 초 하루 영남 지방의 풍속에서는 집집마다 신에게 제사하는데 이 신을 영등신(靈登神)이라 하며, 영남에서부터 호중(湖中)에 이르기까지 농가에서 받드는 신이라고 한다.¹⁶⁾ 부산에서는 2월 초하룻날부터 스무날까지의 사이에 ‘영동 할만네’, ‘2월 할만네’라고 하여 풍신제를 올렸다. 일반 농가에서는 이 바람을 피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면하기 위하여, 또 어촌에서는 피난선의 피해를 면하기 위하여 ‘바람 올린다’고 하여 영동할머니와 그 며느리에게 제사를 올렸고,¹⁷⁾ 기장에서는 2월 초하루에서 그믐날까지 길일을 택하여 부엌에다가 찰밥, 고기, 나물, 과일 등을 준비하여 놓고 술에 숟가락을 꼽고 부뚜막에 반찬과 젓가락을 놓은 뒤, “바람마소, 구름마소, 영동할마씨네요”라고 비손하였다.¹⁸⁾ 즉, 이 신이 부산의 별신굿에서 불교적 색채를 입고 제석신으로 변모하였다.

천왕굿의 제신은 학계에서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다. 박경신은 천왕신을 ‘처낭, 즉 선황의 와음으로 골매기신을 뜻하는 성황신(城隍神)’으로 보고 있으며,¹⁹⁾ 최성진은 ‘무당을 관장하는 신’으로 마을의 무당이 나지 말기를 기원하는 거리로,²⁰⁾ 혹은 일반적으로 천왕(天王)을 “하늘의 왕을 뜻하는 것으로 높은 직능을 가진 신격”으로 보기도 한다.²¹⁾ 그런데 천왕굿을 주로 담당하는 김동연 무녀의 무가를 보면, “천왕님네 밀

15) 2017년 1월 31일 공수 별신굿 손영만 박수의 제석굿 연행 사설.

16) 이능화, 서영대 역주, 『조선무속고』, 2008, 창비, 442-443쪽.

17) 崔常壽, 『釜山の 歲時風俗』, 『향도부산』 제2호, 1963, 394쪽. 김승찬, 『부산 수영지방의 당산제와 세시풍속』, 『국어국문학지』 제29권, 1992, 229쪽.

18) 조태홍, 앞의 논문, 1996, 425쪽.

19) 박경신, 『韓國의 별신굿 巫歌』 4, 국학자료원, 1999, 1쪽.

20) 최성진, 2008, 『동해안별신굿 무가의 전승현황 연구』, 『한국무속학』 17, 64쪽.

21) 국립해양박물관, 『동삼풍어제』, 국립해양박물관, 2013, 88쪽.

에 엉거느리고(엉기고) 떼거느리고(떼로) 못죽은 고혼(孤魂)들 영신들...천왕님 밑에야 녀이라도 안오겠나? 혼이라도야 안오겠나?...왕래천 노비천 시왕(十王)천...천왕님 밑에 따라왔는 모도 이 녀이로 착실히 불라서로...어여차 놓고 씨고 간다.”²²⁾라며, 무녀가 천왕대 밑에 따라온 귀신들을 위한 저승과 이승을 오가는 왕래천·노비천, 저승으로 가지 못한 귀신들을 위한 시왕천을 견고 천왕상을 차려서 이들을 배불려 먹이고 놀린다. 그런 후 무녀는 이들 귀신들이 물고 올 수 있는 살을 막기 위한 살풀이 무가를 부른다.

이 천왕의 신격을 알 수 있는 사료로는 1932년 손진태 선생이 기술한 부산 구포별신굿 순서가 있다. 이를 살펴보면 “山神(堂山) - 거릿대 및 장승 - 井 - 祖上 - 世尊 - 帝釋(家畜의 神) - 痘神 - 成造(家神) - 四天王 - 將帥 - 遠來 - 雜鬼”²³⁾의 순으로 별신굿을 연행하였는데, 여기서는 천왕 거리를 사천왕(四天王)이라 기술하였다. 사천왕은 원래 고대 인도의 신으로 귀신들의 왕이었으나 후에 부처의 제자가 되어 사방을 진호하고 불법을 수호하는 신장(神將)이 되었다.²⁴⁾ 따라서 천왕굿의 제신은 사천왕으로 귀신의 왕으로써 사찰의 사방을 수호하듯, 귀신들을 다스려서 마을의 사방을 수호하여 살을 막는 거리로 볼 수 있다.

부인굿은 경남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연행되지 않는다. 부인굿은 이름 그대로 부인네들을 위한 굿이다. 부인굿의 무가는 단순한 축원(祝願)무가로 구성되어 있어, 신의 본풀이가 없으며, 단지 황성 마누라·금성 부인이라는 신격 이름만 부른다. 이에 부인의 본(本)은 알 수가 없지만, “부인님네 왔다가 이동네 방네전에 매눌(머느리)로 넘우(남의) 집에서 데리고 오나, 딸로 넘우 집으로 보내나, 부인네 같이 얹전

22) 2015년 1월 20일 칠암 별신굿 김동연 무녀의 천왕굿 연행 사설.

23) 손진태, 앞의 책, 1948, 191~192쪽.

24) 한국박물관연구회, 『한국의 박물관: 3: 목아불교박물관, 통도사』, 문예마당, 2000, 78쪽.

하고 착실하고, 어야든동 음식도 잘하고, 부모봉양 잘하고, 이래 모도 잘 할라꼬. 내가 부인님 이래 모셔놓고, 이 정성 드리고, 이 발원 드리는 데.”²⁵⁾에서 동네 부녀자(婦女子)들이 효부열녀(孝婦烈女) 되도록 축원하는 거리임을 알 수 있다. 부인굿은 2013년·2014년에만 안·밖굿으로 연행되었는데, 여성신인 부인을 모셔 부녀자들이 효부열녀되기를 축원하는 거리이므로 안굿에서 연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듯하다.

황제굿은 그 명칭만 보면 서울·경기 지역에서 불리는 무가 ‘황제풀이’의 황제(黃帝)로 오해할 수 있다. 서울·경기 무가의 황제는 중국 삼황오제(三皇五帝) 중 한 분인 황제 헌원씨(軒轅氏)로 수레를 비롯하여指南針(指南鐵) 등 백성들에게 문명을 가르친 성인이다. 반면 부산 별신굿의 황제굿의 황제는 “황제굿으느 무슨 굿인고 하니 소굿이 올시더... 옛날에는 이 소가 아니었으면은 밭을 갈수가 없고 논을 갈수가 없고 참이 황제님네를 착실히 모실 적에... 농사 때는 농사 풍년을 시키주고(시켜주고)”²⁶⁾에서 농사에 중요한 가축인 소를 모시는 거리임을 알 수 있다. 1932년 손진태 선생이 기술한 구포 별신굿에서는 ‘帝釋(家畜의 神)’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굿과 밖굿에서 반복해서 연행되는 제석거리가 바다농사의 풍년을 좌우하는 바람의 신인 영등할매를 모시는 제석굿과 육지 농사의 풍년을 좌우하는 가축의 신인 소를 모시는 황제굿으로 분화된 것으로 보인다.

2. 안굿의 제신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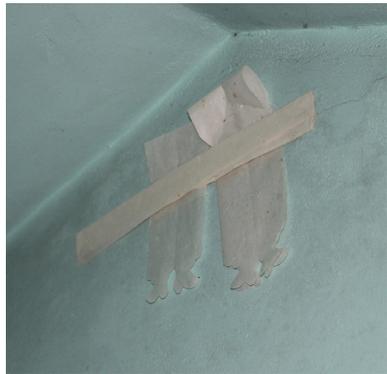
안굿에서만 연행되는 굿으로는 성주굿, 손님굿, 대왕굿, 걸립굿, 대신굿이 있다. 우선 성주굿부터 살펴보면, 성주굿의 제신은 성주신이다. 성

25) 2015년 1월 16일 칠암 별신굿 서한나 무녀의 부인굿 연행 사설.

26) 2015년 1월 19일 칠암 별신굿 김동연 무녀의 황제굿 연행 사설.

주는 가택의 신을 모두 관장하는 신의 명칭이며,²⁷⁾ 그 가택의 건립에서 부터 일문일축의 번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문에 관해서 처음부터 끝 까지 복덕을 담당한다.²⁸⁾ 부산 별신굿에서 성주굿을 도맡아 하는 김동연 무녀는 “성주 임네 난데 본(本)은 괴(그) 어디가 본일런가 경상도 안동 땅에 제비원이가 본(本)이로다~”라는 성주 본풀이를 구송하며, “성주는 대주(大主, 집안의 남자주인)를 믿고 대주는 성주를 믿고..각성(各姓) 육성(六姓)받이에 집을 지어서 살림을 이마큼 붙아서(불려서) 먹고 입고 쓰고 남거로(남도록) 점지해놓고”²⁹⁾라며 마을의 각 가정의 복덕을 기원한다. 기장 별신굿에서 성주신의 신체(神體)는 아래의 <사진 2>와 같다.

<사진 2> 2013년 대변 별신굿 성주굿 장면 및 대변 연화리
골매기할배당 성주신체³⁰⁾



27) 이능화, 앞의 책, 2008, 333쪽.

28) 赤松智城·秋葉隆, 앞의 책, 1991, 87쪽.

29) 2013년 2월 15일 대변 별신굿 김동연의 성주굿 연행 사설.

30) 대변 별신굿 제주가 별신굿의 성주신이 성주굿을 잘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쌀을 담아 세운 대들보에 성주신 신체를 붙이는 장면이다. 성주신이 굿을 잘 받았으면 짐착제가 없는데도 성주신 신체가 대들보에 붙는다. 이는 성주신이 대변 마을의 가가호호의 가족의 안녕과 복덕을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손님굿의 제신은 손님·마마·호구별상 등으로 불리는 천연두신이다. 한국에 천연두가 최초로 유행한 것은 서기 4~5세기경으로 북으로는 중국의 동북지방인 요동을 거쳐, 서로는 중국 산둥지방 및 서해안으로 황해를 건너 전파되었다.³¹⁾ 이에 부산 별신굿에서 손님굿을 도맡아 연행하는 김영희 무녀는 손님을 “강남 대왕국 명신(名神) 손님이라. 조선국에 인심 좋고 겨레 좋고 옷 좋고 밥 좋다 말을 듣고, 각성바지 자손들 정구³²⁾ 치로 오는 손님 신들인데”³³⁾라며, 손님신을 중국 강남에서 건너온 천연두신이라 설명한다. 김영희 무녀는 지금은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만 먹으면 천연두가 낳는 좋은 시절이지만, 별신굿에서 손님굿을 하는 이유는 손님신을 잘 모셔서 집집마다 큰 병 없이 장수하길 기원하는 뜻에서 한다고 설명한다. 손님신은 학리 마을의 경우 한양각시로 불리며,³⁴⁾ 서울·경기에서도 호구마마 혹은 호구별상으로 불리는 여신으로 표상된다. 여신으로 표상되는 손님신의 무신도는 아래의 <사진 3>과 같다.

한편 대왕굿·결립굿·대신굿은 부산 별신굿에서 신의 본풀이를 하지 않는 축원무가로 연행되기 때문에, 제신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다. 대왕굿의 제신은 대왕할머니로서, 김영숙 무녀의 사설에 따르면 “옛날 옛적에 대왕할마이는 말명³⁵⁾을 모시고 동서남북 다니며, 자손들

31) 신규한, 『동아시아 의학의 재발견』, 살림, 2006, 30~31쪽.

32) 정구는 ‘전구(前驅)’의 와음이다. 전구는 전염병의 잠복기를 뜻하며, 여기서는 천연두를 가법게 치르는 것을 일컫는다.

33) 2013년 2월 16일 대변 별신굿 김영희의 손님굿 연행 무가 사설.

34) 2014년 2월 14일 학리 골매기할매당 앞의 한양각시단에서 학리노인회장 신한호씨와 인터뷰. 참고로 한양각시단은 시멘트로 네모꼴의 단을 만든 것이다. 예전에는 별신굿이나 제만을 올릴 때 한양각시단에도 제물을 차렸지만, 요즘은 천연두가 없어진 관계로 한양각시단에 제물을 올리지 않는다.

35) 말명은 만명의 와음이다.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五洲衍文長箋散稿』에 이르기를 “김유신의 어머니가 만명신이 되었다고 한다. 지금 무녀가 만명이라 주문을 외우면서 이를 제사하며, 만명을 모시는 신사에는 반드시 구리로 만든 둥근 거울을 걸어놓고 이름하기를 명도(明圖)라 했다” 한다(이능화, 앞의 책, 2008, 221쪽).

<사진 3> 사머니즘박물관 소장 호구마마 무신도

(좌: 19세기 작품, 우: 20세기 작품)



성불주고, 신명을 거느리고 다니시던 대왕님”³⁶⁾이라고 서술한다. 또한 대왕신에 대해 김영희 무녀는 “대왕할머니, 옛날에 양반 집에서 신이 내린 무당”³⁷⁾이라 설명한다. 양반 집안의 규수가 시집을 가서 신병이 나서 신이 내렸는데, 이를 양반가의 체면이 떨어질까 염려하여 시부모가 신병이 난 며느리를 죽이게 되고 한 맺힌 며느리의 님이 그 집 딸에게 내리게 된다. 그 딸이 혼인을 하여 자식을 낳고 길러 출가를 시킨 후 제면(대왕·결립)할머니가 되고, 그 할머니의 딸과 며느리가 모두 신병이 난다는 이야기는 동해안 중부·북부지역에서 진행되는 제면굿, 동해안 남부지역에서 진행되는 대왕굿·결립굿의 무가 내용이다.³⁸⁾

36) 2013년 2월 16일 대변 별신굿 김영숙 무녀의 대왕굿 연행 사설.

37) 2017년 2월 1일 공수 별신굿 제당에서 김영희 무녀와의 인터뷰.

38) 정연락, 『동해안 제면굿의 유형과 구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20쪽. 서사 무가로 구연되는 제면굿(대왕굿·결립굿)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옛날에 한 양반집에서 자란 딸이 혼인을 하여 다른 양반집의 며느리가 되었는데, 신

다시 말해서, 제면굿·대왕굿·걸립굿은 동일한 무가를 구송하는 곳 거리로서, 그 제신은 무조신(巫祖神)이다. 부산에는 본래 걸립굿이 없었는데, 무조신을 모시는 대왕굿과 걸립굿을 같이 연행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다. 부산의 원무당(김영달·김수자)에서 동해안 중부 무당 출신의 김석출 무 집단으로 주무(主巫)가 교체가 되면서, 김석출 무 집단이 대왕굿 사설을 숙지하지 못해 대왕굿이 일반 축원무가로 변했고,³⁹⁾ 김석출 집단의 제면굿이 걸립굿이란 명칭으로 연행되게 되었다. 이에 대왕굿에 이어 걸립굿이 연행되게 되었다.⁴⁰⁾ 한편 대신굿도 무조신을 모시는 거리인데, 대왕굿과 걸립굿의 제신이 대왕할머니 혹은 걸립할머니라면, 대신굿의 제신은 지역의 단골무녀 또는 직계 무녀들을 위한 굿⁴¹⁾

병이 나고 마을에 그 영험함이 소문난다. 양반가의 체면이 땅에 떨어질 것을 염려한 시부모는 신병이 난 며느리를 죽이게 되고, 한 맺힌 며느리의 녀이 딸에게 붙어 딸마저 신병이 난다. 딸은 피신하여 도망가지만 결국 신내림을 받게 된다. 그 딸은 혼인을 하여 자식을 낳고 길러 출가를 시킨 후 제면할머니가(대왕할머니 혹은 걸립할머니, 이하 제면할머니로 표기) 되고, 제면할머니의 딸과 며느리가 모두 신병이 나서 신다툼이 일어난다. 욕심 많고 탐심 많은 제면할머니는 삼베를 수확하기 위해 며느리와 딸에게 밭을 나누어 주는데 며느리에게는 나쁜 밭과 볏은 삼씨를 주고, 딸에게는 좋은 밭과 생삼씨를 준다. 그러나 신의 조화로 둘의 삼씨는 바뀌게 되고, 결국 며느리의 밭에서 좋은 삼을 더 많이 수확하게 된다. 제면할머니는 수확한 삼으로 삼베를 짜서 옷과 이불 등을 만들고, 며느리의 남은 삼베를 가지기 위해 점쟁이와 짜고 그것마저 가로채 딸에게 준다. 딸에게 준 삼베로 자루를 만들게 하여 곡식을 채우라고 하고 다 채우지 못하자 제면할머니가 단골네 집으로 동냥을 간다. 하지만 여러 단골네에게 수모를 당하고, 화가 난 제면할머니는 저주를 내려 응징한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수양아들네에서 후하게 대접을 받고 나오는데 화를 당한 단골네들이 제면할머니를 모시고 가서 잘못을 사죄를 하니 그제야 제면할머니가 나쁜 액을 풀어준다. 단골네들에게 받은 곡식을 가지고 며느리와 함께 떡을 빚는데 며느리 떡은 안반 아래 두고, 제면할머니 떡은 안반 위에 둔다. 며느리의 떡을 이웃집 개가 훔쳐 먹자, 화가 난 며느리는 그 개를 잡아 가죽을 벗겨 장구를 만든다. 그렇게 만들어진 장구를 두드리니 천상무당, 지하무당 등이 춤을 춘다. 이로써 며느리는 딸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제면할머니의 후계자가 된다는 내용이다.

39) 최성진, 「동해안별신굿 무가의 전승현황 연구」 『한국무속학』 17, 2008, 74쪽.

40) 김형근, 「동해안 남대 별신굿의 특징 연구: 안대 별신굿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37집, 2013, 312쪽.

41) 윤동환, 『동해안 무속의 지속과 창조적 계승』, 민속원, 2010, 235쪽.

이다. 따라서 대왕굿·걸립굿은 일반적인 여성 무조신, 대신굿은 직계 무녀들의 여성 무조신을 모시는 거리임을 알 수 있다.

3. 밖굿의 제신의 특징

밖굿에서만 연행되는 굿거리로는 심청굿·용왕굿·지신굿·선생굿·장수굿·월례굿·꽃노래·등노래·뱃노래·거리굿이 있다. 여기서는 밖굿의 고정 굿거리가 아닌 지신굿과 신들을 보내는 굿거리인 꽃노래·등노래·뱃노래·거리굿은 밖굿의 제신의 특성을 도출하는데 유용하지 않으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먼저 심청굿부터 살펴보면, 심청굿은 동해안 무당들이 심청이야기를 수용하여 관중들의 서사적 흥미를 유발함과 동시에 안질 예방과 치병의 목적을 지닌 맹인거리(또는 추남굿)를 근대에 별신굿의 굿거리로 확장시킨 것이다.⁴²⁾ 심청굿의 제신은 1968년 1월 21일 울진의 변연호 무녀(김석출씨의 첫 번째 부인)가 심청굿을 하면서 마지막에 심청굿의 연행 이유에 대해 설명한 부분에서 알 수 있다.

심청이 굿으로 어찌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일철 정기가 눈인데 어찌야 하다가보면 성한 눈도 굿힐 수가 있고 애삼도 막아주고 테삼도 걸어주고 못된 도둑 눈두야 걸어주시고 이 물가에 사던 소철(所致)로 깨빠(고빠) 없던 칠리매(千里馬) 타고 가가부 자여 손들이 만경창과 나갈지라도 첫째는 알기를 잘 보아야 아무 사고나 없임나이다. 눈에는 총기 들라꼬 이 뜻으로 심봉사를 모시나이다.⁴³⁾

즉, 위의 변연호 무녀의 사설에서 심청굿의 제신이 효성으로 아버지

42) 윤동환, 「심청굿의 전승과 확산」 『구비문학연구』 제38집, 2014, 147쪽.

43) 김태근, 『한국무가집』 1, 집문당, 1971, 340-341쪽.

의 눈을 뜨게 한 심청이가 아니고 장님이라는 질병을 극복한 심봉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심청굿에서 눈병을 예방하기 위해 심청이의 냇도 불러오지만, 별신굿에서 심청굿을 하는 연유는 어부들이 바다에 나갔을 때 안개 속일지라도 늘 충기를 주어서 앞을 잘 보아 어디를 가든 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뜻으로 심봉사 냇을 부르는⁴⁴⁾ 것이므로, 심청굿의 제신은 여신인 심청이보다 남신이자 맹인신인 심봉사가 더 비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용왕굿을 살펴보면, 부산에서 용왕제의 역사는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반적으로 용왕은 네 방위의 신으로 구성되는데, 부산은 한국의 남쪽에 해당하므로 남해용신에 대한 제의가 신라시대 거칠산군(동래군) 형변부곡(兄邊部曲)⁴⁵⁾에서 중사(中祀)⁴⁶⁾로 거행되었다. 한편 기장 별신굿의 용왕거리의 제신은 “사해용왕(四海龍王), 즉 동해의 광연왕(廣淵王), 남해의 광리왕(廣利王), 서해의 광덕왕(廣德王), 북해의 광택왕(廣澤王)”⁴⁷⁾이다. 기장 별신굿에서 용왕제는 마을에 남아있는 공동우물이나 마을 해변가에서 지낸다. 즉, 물이 용왕의 신체(神體)이다. 우물의 경우 기장 별신굿 첫 날 당산맛이 할 때 간단하게 고사를 지내는 반면, 밖굿에서 진행되는 용왕굿의 제신은 마을 앞 바다의 사해용왕으로 마을의 해변가 근처에서 굿을 한다. 기장 별신굿을 포함해서 부산의 별신굿은 어촌마을에서 열리며, 용왕굿에서 무녀가 마을의 풍어와 무사항해를 기원하기 때문에 부산 별신굿에서 용왕굿은 제일 큰 굿거리이다. 밖굿에서 용왕거리를 할 때는 선주들과 해녀들이 각각 용왕상을

44) 김선풍, 『한국시가의 민속학적 연구』, 형설출판사, 1997, 84쪽.

45) 『동래부읍지』 고적조에 형변부곡은 부(府)의 남쪽 해안에 있다고만 기술되어 있고 정확한 소재지는 밝히지 않았다(황경숙, 『삼국·통일신라시대 부산의 민속문화』 『향도부산』 제19호, 2003, 147쪽).

46) 『삼국사기』 잡지 제사조의 중사에 “四海: 東阿等邊(退火郡) 南兄邊(居柒山郡) 西未陵邊(屎山郡) 北非禮山(悉直郡)”라 기술되어 있다.

47) 2017년 2월 3일 공수 별신굿에서 김동언 무녀의 용왕굿 연행 사설.

차려나오며, 용왕굿이 끝날 때쯤 선주들과 해녀들은 사해용왕을 위한 용왕밥 4개를 사방의 바다에 던지며 기원을 올린다. 용신은 무신도에서 남신으로 표상되며, 용신의 무신도는 아래의 <사진 4>와 같다.

<사진 4> 사머니즘박물관 소장 용신 무신도 (20세기 작품)



또한 선생굿은 지역의 당주무 또는 직계 무부들을 위한 굿⁴⁸⁾으로 지역의 단골무녀 또는 직계 무녀들을 위해 제를 올리는 대신굿과 대조를 이룬다. 선생굿의 제신을 지칭하는 선생은 무부들을 뜻하는 용어로서, 조선시대의 각 지역에 신청(神廳)이라는 무부들의 집단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 신청은 지역마다 명칭이 조금씩 달랐는데, 경기·충청 지역에는 재인청, 경기 이북 지역에는 스승청, 전라 지역에는 신청, 제주도에는 순방이라 하였다. 각 신청에서는 선생안(先生案)으로 칭하는 무단(巫團)의 취지·규약과 선배의 성명을 기록해 둔 책자를 봉안하고, 매년

48) 윤동환, 앞의 책, 2010, 235쪽.

1-2회 선생안제(先生案祭)를 올렸는데,⁴⁹⁾ 선생이라는 무부의 제신의 명칭과 제시는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장수국은 여러 장수들을 낯동우에 좌정시켜 그 장수들의 힘으로 마을 주민들의 수명장수와 복을 빌고 각종 살을 막도록 기원하는 거리이다. 장수국의 무가를 살펴보면, 제신으로 먼저 중국 장수들, ‘일침장사(一劍斬蛇) 한태중(漢高祖)⁵⁰⁾, 이군 불사(二君不事) 지양추(齊王蠋)⁵¹⁾, 삼국 명장(三國名將) 제갈량(諸葛亮), 셋별 충도(四面衝突) 초패왕(楚霸王)⁵²⁾, 오관 천자(五關斬將) 관우(關羽) 장사, 육국 문장(六國盡滅) 진시황(秦始皇), 칠년 대장(七縱七擒) 상토(諸葛亮)⁵³⁾, 팔시 이세(八年風塵) 초패왕(楚霸王), 구세 동방(九世同居) 장군님(張公藝)⁵⁴⁾, 십년 조조(十年不屈) 한서방(漢蘇武)⁵⁵⁾, 선봉장(先鋒將) 용자룡⁵⁶⁾, 후봉장(後鋒將) 패오리⁵⁷⁾ 장사’을 칭한다. 이후 ‘오방위(五方位) 장수, 팔도(八道) 장수, 밥 잘 먹거나 술을 잘 마시거나 똥똥하거나 날씬하거나 혹은 활을 잘 쏘거나 춤을 잘 추는 등 갖가지 특징들을 가진 장수들’이 낯동

49) 赤松智城·秋葉隆, 앞의 책, 1991, 272-274쪽.

50) 한태중은 ‘한고조(漢高祖)’의 와음으로 유방(劉邦)을 말한다. 이하 장수 이름의 해제는 박경신의 『韓國의 별신국 巫歌』 10(1991) 중 김영희 무녀의 장수거리를 채록하여 해제한 것을 참조하였다.

51) 지양추는 제왕축의 와음이다. 제(齊)나라의 왕축은 연(燕)나라가 제나라를 파(破)한 후에, 연나라의 악의(樂毅)가 왕축(王蠋)이 어질다는 말을 듣고 초청(招請)했으나, 가지 않고 자해(自害)했다고 전해지는 인물이다.

52) 초패왕은 ‘항우(項羽)’를 일컫는다.

53) 상토(諸葛亮)는 ‘제갈량’의 와음이다.

54) 장군님은 ‘장공예’의 와음이다. 장공예는 당(唐)나라 시대의 수장인(壽長人)의 이름이다. 그는 구대(九代)를 분가(分家)하지 않고 한 집에서 살았는데, 그 비결(秘訣)을 묻는 왕에게 그 답(答)은 ‘백인(百忍)’에 있다고 글자로 답하였다고 한다.

55) 한서방은 ‘한소무(漢蘇武)’의 와음이다.

56) 용자룡은 ‘조자룡’의 와음이다.

57) 패오리는 ‘팽월’의 와음이다. 팽월은 전한(前漢) 창업(創業) 초기의 무장(武將)이다. 산둥(山東) 창읍(昌邑) 사람으로, 처음에는 항우의 밑에 있었으나, 뒤에 유방을 좇아 초(楚)나라를 멸(滅)하는 데에 많은 공을 세우고 양왕(梁王)으로 봉(封)해졌다. 뒤에 참소(讒訴)를 입어 삼족(三族)과 함께 주살(誅殺)되었다.

우에 좌정하기를 청한다.⁵⁸⁾ 아래의 <사진 5>는 장수신이 좌정하여 장수신의 신체를 상징하는 돛동우이다.

<사진 5> 2013년 2월 3일 대변 별신굿의 장수굿의 신체와 살풀이 하는 장면



장수신의 역할은 “장수님네를 모시더라도.. 농사짓더라도 한재(旱災) 수재(水災) 막아서 농사 풍년 시켜주소.. 부부 이별살 · 자식 자궁살 · 육갑살(六甲煞) · 디딜살 · 동재살(童子煞) · 천살(天煞) · 지살(地煞) · 손재살(損財煞) · 관재구설살(官災口舌煞) · 청강살 · 내망살 · 중목살 이 모든 살을 막아주소.”라는 사설처럼 나쁜 살들을 막아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장수굿에서도 다른 굿에서처럼 마을 주민들의 수명장수나 복덕을 기원하기도 하지만, 위 <사진 5>의 우측 사진과 같이 장수신이 돛동우에 좌정하신 후 돛동우를 엮어 놓고 남자 주민들만 그 위에 앉히고 신칼로 살을 막는 의례를 행하는 것에서 장수신의 주된 역할이 살을 막는 것임을 알 수 있다.

58) 2013년 2월 24일 대변 별신굿 중 김동언 무녀의 장수굿 연행 사설.

마지막으로 월례곳은 “착실히 언감(殞感), 제감(除減) 하시고, 조상님네 혼백을 담아 돌아오소...나는 죽어서 귀신이 되어, 오늘날에 낮이라고 와서 혼이라도 와가지고, 내 자손들도 만나보고 간다.”⁵⁹⁾라는 사설에서 이 거리의 제신이 마을 주민들의 조상들임을 알 수 있다. 최근 가장 별신굿에서 제사 음식을 장만해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만, 본래 월례곳을 할 때는 마을 가가호호마다 월례상을 차려 나온다. 아래의 <사진 6>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올리는 공수마을 월례상이며, 다음 공수 별신굿부터는 월례상을 차리지 않겠다고 조상들에게 고했다. 월례상은 아래의 <사진 6>의 좌측 사진의 맨 아래쪽 상부터 김씨·김씨·고씨·성씨·정씨 여섯 가구가 월례상을 차려나왔으며, 무녀가 무가를 부르는 동안 자손들이 월례상에 절을 올리고 술과 (저승 왕래) 노비천을 올린다. 이 거리는 “웃대 조상님들이 그 곳 받아 좋은데 가시고요...우쨌든 못 다준 명복을 많이 주고 가세.”라는 사설에서 마을의 각 가정의 조상들이 자손들에게 수명장수와 복을 주고 좋은 곳으로 가도록 천도하는 거리임을 알 수 있다.

<사진 6> 2017년 2월 4일 공수 별신굿 월례곳의 상을 차리는 장면
및 정씨 월례상



59) 2017년 2월 3일 공수 별신굿 김동연 무녀의 월례곳 연행 사설.

IV. 맺음말

지금까지 기장 별신굿의 안굿과 밖굿에서 반복하여 진행되는 굿거리의 제신, 안굿에서만 진행되는 굿거리의 제신, 밖굿에서만 진행되는 제신을 살펴보았다. 안굿과 밖굿에서 반복하여 진행되는 굿거리는 가망굿·세존굿·제석굿·천왕굿·부인굿·황제굿이 있었다. 가망신은 굿청의 문을 여는 무속의 근원적인 조상신이며, 세존신은 자손의 점지 및 수명장수를 관장하는 신, 제석신은 바람을 관장하는 제석할매(또는 영등할매), 천왕신은 귀신을 다스리는 사천왕, 부인신은 부인네들이 효부 열녀되도록 도와주는 황성 마누라·금성 부인, 황제신은 농사를 좌우하는 가축 신인 소를 표상하였다.

즉, 안굿과 밖굿에서 반복하여 진행되는 굿거리의 제신은 남신과 여신, 한층 더 나아가 동물신이 혼재되어 있었고, 이들 신들의 특성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가망신은 굿문을 여는 역할을 하고 부인굿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안굿에서만 진행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부인굿은 안굿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여성 제의적 특성을 띠는 안굿의 특성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굿의 시작을 알리는 가망신과 밖굿에서 간헐적으로 진행되는 부인신을 제외하면, 세존신·제석할매·사천왕·황제(소신)가 안굿과 밖굿에서 중복하여 모셔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황제굿은 1932년 손진태 선생이 기술한 구포별신굿의 ‘帝釋(家畜의 神)’에서 제석거리가 바다농사의 풍년을 좌우하는 바람의 신인 영등할매를 모시는 제석굿과 육지 농사의 풍년을 좌우하는 가축의 신인 소를 모시는 황제굿으로 분화된 것으로 해석한다면, 안굿과 밖굿에서는 세존신·제석신(제석할매, 소신)·사천왕으로 불교적 색채를 입은 토착의 큰 신들이 안굿과 밖굿에서 중복 모셔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안굿에서만 진행되는 굿거리로는 성주굿, 손님굿, 대왕굿, 걸립

곳, 대신곳이 있었다. 성주신은 가택의 건립과 집안 사람들의 안녕을 책임지는 남신이었으며, 손님신은 천연두를 관장하는 여신, 대왕곳과 걸립곳의 대왕할머니와 걸립할머니는 전반적인 여성 무조신, 대신곳의 대신할머니는 별신곳 참여 무녀의 직계 여성 무조신을 표상하였다. 즉, 성주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신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반면 밖곳에서만 진행되는 곳거리로는 심청곳·용왕곳·지신곳·선생곳·장수곳·월례곳·꽃노래·등노래·뱃노래·거리곳이 있었으며, 그 중 임의적으로 진행되는 지신곳과 신을 보내는 송신거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먼저 심청곳의 제신은 눈병 예방과 눈에 충기를 주어 무사항해를 관장하는 남신 심봉사였으며, 용왕신은 사해용왕, 즉 동해의 광연왕, 남해의 광리왕, 서해의 광덕왕, 북해의 광택왕으로 용궁부인으로 표상되는 여신에 대조되는 남신이였다. 선생곳의 제신은 조선시대 신청의 선생안 제사에서 비롯된 직계 무부들의 남성 무조신이였으며, 장수신은 나쁜 살을 막고 복덕을 주는 중국과 한국의 모든 장수신, 월례곳의 제신은 마을 주민들의 남성 혹은 여성 조상신이였다. 즉, 밖곳의 제신은 월례곳의 조상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남신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정리해보면 안곳은 성주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신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밖곳은 월례곳의 조상신을 제외하고는 남신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문제는 집안의 안가태평을 책임지는 안곳의 성주신과 밖곳의 월례조상신 때문에 안곳의 여신과 밖곳의 남신으로 이원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의 성별을 넘어서서 제의를 담당하는 주체의 측면에서 본다면, 성주신은 가신으로서 성주제사는 집안의 여성들이 담당했으며 조상신의 제사는 사대봉천으로 유교식 제사로 집안의 남성들이 담당하였다. 가령 장안에서는 안가태평을 위해 할머니가 주관이 되어 정월 대보름 성주 제사를 지냈으며, 기장에서는 집안의 안가태평을 위해 추석

이나 설에 ‘성주세존님을 모신다’고 하여 성주 제사를 지냈다.⁶⁰⁾ 반면 월례굿의 마을의 조상신은 안가태평을 위한 남성 주도의 유교식 제의의 대상이며, 월례굿에서 또한 유교식 제사상을 차려나와 월례굿 도중에 자손들이 차례를 올렸다. 따라서 성주굿은 여성 주도의 여성 제의적 성격을 띠며, 월례굿은 남성주도의 남성 제의적 성격을 띠는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기장 별신굿의 안굿과 밖굿에 중복되어 진행되는 거리의 제신은 불교적 색채를 입은 부산 지방 토착의 큰 신들이었으며, 안굿의 여성 치병신인 손님신은 밖굿의 남성 치병신인 심봉사에 대립되었으며, 안굿의 여성 무조신은 밖굿의 남성 무조신에, 안가태평을 위한 여성 주도의 제의의 대상인 성주신은 안가태평을 위한 남성 주도의 제의의 대상인 월례 조상신에 대립되었다. 그 외 밖굿에서만 모셔지는 용신과 장수신은 대표적인 남성 토착신이다. 따라서 안굿은 여신이나 여성 제의적 특성을, 밖굿은 남신이나 남성 제의적 특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1. 저서

- 국립해양박물관, 『동삼풍어제』, 국립해양박물관, 2013.
 김선풍, 『한국시가의 민속학적 연구』, 형설출판사, 1997.
 김태근, 『한국무가집』 1, 집문당, 1971.
 박경신, 『韓國의 별신굿 巫歌』 4, 국학자료원, 1999.
 박경신, 『韓國의 별신굿 巫歌』 10, 국학자료원, 1999.
 손진태, 『蘇塗考』, 『한국민족문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48.
 신규한, 『동아시아 의학의 재발견』, 살림, 2006.

60) 조태흠, 앞의 논문, 1996, 423쪽.

赤松智城·秋葉隆, 심우성 옮김, 『朝鮮巫俗의 研究』下, 동문선, 1991.
윤동환, 『동해안 무속의 지속과 창조적 계승』, 민속원, 2010.
이능화, 서영대 역주, 『조선무속고』, 창비, 2008.
조홍윤, 『한국의 샤머니즘』,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한국박물관연구회, 『한국의 박물관 3: 목아불교박물관, 통도사』, 문예마당, 2000.

2. 논문

김승찬, 「부산 수영지방의 당산제와 세시풍속」 『국어국문학지』 제29권, 1992.
김형근, 「동해안 남대 별신굿의 특징 연구: 안대 별신굿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37집, 2013.
양종승, 「韓國 巫俗神 考察: 巫神圖를 中心으로」 『몽골학』 4, 1996.
윤동환, 「심청굿의 전승과 확산」 『구비문학연구』 제38집, 2014.
정연락, 「동해안 제면굿의 유형과 구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조태흠, 「기장지방의 세시풍속」 『한국민족문화』 8, 1996.
홍대한, 「가망의 의미연구」 『韓國民俗學』 제41권, 2005.
崔常壽, 「釜山의 歲時風俗」 『향도부산』 제2호, 1963.
최성진, 「동해안별신굿 무가의 전승현황 연구」 『한국무속학』 17, 2008.
최용수·김정호, 「아시아 지역 무속의례의 신화수용 연구」 『한민족어문학』 제46집, 2005.
황경숙, 「삼국·통일신라시대 부산의 민속문화」 『향도부산』 제19호, 2003.

투고일: 2017.06.20. 심사완료일: 2017.07.04. 게재확정일: 2017.07.20.

| Abstract |

A Study On Gods Of Donghaean Pyolshingut

Mun, Hea-Jin

Donghaean Pyolshingut(shaman's ritual of the eastern coast in south Korea) can be divided into Pyolshingut in northern region of the eastern coast, Pyolshingut in central region of the eastern coast and Pyolshingut in southern region of the eastern coast; especially, Pyolshingut in southern region of the eastern coast is performed for five to seven days as Angut(meaning inner shaman's ritual) and Pakgut(meaning outer shaman's ritual).

Why Pyolshingut in only southern region of the eastern coast including Busan is performed as Angut and Pakgut? The late Seokchul Kim, a holder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Donghaean Pyolshingut, explained it as Angut is a ritual for a goddess, Golmeagihalme who is a village guardian deity and Pakgut is a ritual for a god, Golmeagihalbe who is a village guardian deity. Previous researches related to gods of Donghaean Pyolshingut have been focused on gods of Pyolshingut in northern region of the eastern coast and Pyolshingut in southern region of the eastern coast; as a result, researches about characteristics of goddess of Angut and gods of Pakgut are rare.

Then, Angut and Pakgut of Pyolshingut in southern region of the eastern coast can be dualized as female rituals and male rituals? In order to ask for these answers, this paper might inquire the characteristics of female rituals in Angut and male rituals in Pakgut, dividing the research object into gods of Angut and Pakgut, gods of Angut and gods of Pakgut. Research objects

of this paper are shaman songs and materials of participant-observation of Pyolshingut of Gijang-gun from 2013 to 2017. This paper might be meaningful for identifying goddesses of Angut in Busan in comparison with those of middle and northern region of the eastern coast and be useful for understanding traditional goddesses in Busan.

Keywords: Gijang Pyolshingut, Angut(meaning inner shaman's ritual), Pakgut(meaning outer shaman's ritual), Goddesses of Busan, Gods of Busan